

통일신라의 문화교류 및 전탑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김상구¹, 이정수^{1*}
¹충남대학교 건축학과

Examination on unified Silla's cultural exchange and brick pagoda formation course

kim, Sang-Gu¹, Lee, Jeong-Soo^{1*}

¹Division of Architec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우리나라의 불탑은 목탑, 전탑, 석탑 등 다양하게 조영되었다. 하지만 전래되어 지고 있는 불탑은 전탑, 석탑 등 소실되기 어려운 재질의 불탑 형식만이 있다. 석탑에 비해 전탑의 경우 실측 등 실물에 대한 자료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으나, 문헌적인 자료 및 축조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전탑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지역적으로 제한적인 점, 재료적인 한계를 문헌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점, 탑의 구성을 시대적, 지역적인 문제로 해석하지 않고 탑의 조영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것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전탑이 축조된 지역에서의 지역적 문화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전탑형성과정을 해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류는 나타난 유적을 비교해 살펴보면,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와 함께 해상경로로의 교류가 있었으며, 이러한 교류는 동아시아지역과도 함께 공유되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는 전과를 통한 맹목적인 습득이 아니라 지역적인 세력의 선택적인 교류라 할 수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전탑이 조영된 이유로 이제까지의 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양질의 흙 뿐 만 아니라 불교적으로 중심세력에 부합하지 않는 의상의 화엄종의 교섭 및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인 불교의 대중화, 지방세력의 거점화 등이 지방세력과의 밀접한 관계가 전탑 조영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탑의 조영은 발해와 신라와의 교섭관계 및 지역적, 민족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중국에서 넘어온 문화에 대한 선택적인 소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전탑이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적인 전파 및 중국의 소국으로서의 발생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국가의 형성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Korean pagodas were constructed in the shape of a wood pagoda, brick pagoda, stone pagoda, etc.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ly remaining traditional pagodas are those having nonflammable materials, such as brick, stone, etc. Compared to the stone pagoda, there is data regarding brick pagodas, but there is little literature data on how to construct these pagodas. This appears to be because there are relatively few Korean brick pagodas currently remaining, they are locally restricted, the material limit is not overcome, pagoda's historical and regional problems have not been analyzed, and pagoda construction is centered on pagoda construc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local cultural characteristics on the construction of brick pagodas. As a result,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was performed through the silk road and there was a marine route for cultural exchange. Such exchange was shared with the East Asia area as well, which can be found by comparing remains at related areas. Exchange with China can be mentioned as the selective exchange of local powers as well as blind learning. Second, brick pagoda were constructed in Korea because of the good quality soil easily. Uisang's Hwaecomjong was negotiated with the main power not agreeing with Buddhism, which was popularized and the local power. Third, brick pagoda construction was influenced by negotiation related between Balhae and Silla, in which the ethnic influence was locally affected and could be mentioned as being a culturally selective result transferred from China. As a result, brick pagodas can be oriented by forming a unitary state rather than a small country within China's influence range as well as cultural transfer through the silk road.

Key Words : brick pagoda, andong, Young-gwang pagoda, transmission. Reception

*Corresponding Author : Lee, Jeong-Soo(Chungnam National Univ.)

Tel: +82-10-6485-5491 email: essence@cnu.ac.kr

Received May 8, 2014

Revised July 10, 2014

Accepted August 7, 2014

1. 서론

우리나라의 불탑은 목탑, 전탑, 석탑 등 다양하게 조영되었다. 하지만 현재 전래되어 지고 있는 불탑은 전탑, 석탑 등 소실되기 어려운 재질의 불탑의 형식만이 남아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전탑과 석탑에 대한 전래 및 수용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자신만의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석탑의 경우 많은 연구와 실측 등 자료의 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실까지 진행되어 왔으나, 전탑의 경우 형식 및 양식에 대한 자료로 고유섭의 “조선탑과연구”, “한국탑과의 연구”와 장중식 “한국불교미술 연구”, 박홍국의 박사논문 “한국전탑의 고고학적 연구”, 박경식의 ‘탑과’ 등 탑을 소개하면서 전탑 양식을 해석하였으며, 근대에 들어서면서는 안동지역의 탑, 전탑만을 논한 임세권의 “한국전탑의 전래와 변천과정”, 신용철의 “경북 안동지역 불탑의 편년과 특징” 권병혁의 “안동지역 전탑에 대한 시론” 등 많은 책과 논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는 양식사론적인 자료로서 문헌적인 자료 및 축조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전탑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지역적인 제한적인 점, 재료적인 한계를 문헌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점 등으로 탑의 구성을 시대적, 지역적인 문제로 해석하지 않고 탑의 양식사 및 양식에 대한 편년, 위치에 따른 양식 등 기본적인 양식사에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제까지 전탑이 축조된 지역에서의 지역적 문화적인 특성을 중점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Fig. 1] Status contrast jeontap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전탑은 국보, 보물, 문화재 자료, 시도지정문화재 등 총 망라하여 15기로 전탑 6기, 모전석탑 9기로 자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이제까지 연구적 자료로 알려진 내용 또한 재료의 구입이 보다 쉽다는 이유[1]가 대부분이며, 특히 안동지역의 경우 벽돌재가 되는 다량의 사질퇴적토(沙質堆積土)를 취득할 수 있다는 여건과 화강석재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서의 불합리성은 사질퇴적토는 소성 시 점성이 부족하여 벽돌재로 사용하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점토성이 있는 흙이 필요하며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가마의 형성이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이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와서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한 종파의 설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2]. 임세권의 논문 중에서 의의제기[3]를 한 것이 눈에 띈다. 그는 ‘한국전탑의 전래와 변천과정’에서 종파나 특정불교세력이 안동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는 것 즉 지역적인 특성을 문화적인 배경으로 놓았는 점을 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전파의 중심인 세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전탑 및 건축적인 행위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화교류의 대한 의견을 필역하고 안동지역의 지역적인 지배세력에 대한 점을 고찰하여 이제까지의 관점에서 탈피한 시점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2.1 7-8세기 건축적 교류현황

인도에서 생성된 불교는 중국을 거쳐 고구려, 백제 4세기, 신라 6세기로 각각 시기가 다르게 전파, 공인되었다. 신라의 경우 눌지왕(457년)시기에 불교가 전파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법흥왕(527년)에 공인된 것만 보더라도 공인이라는 단어는 이때부터 사용하였다가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이때부터 인정 하였다고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불교전래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최초의 불교문화권과 접촉한 것은 전한시기(기원전 206~기원후 8)에 간다라 지방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하지만 중국의 불교문화는 이전 도교라는 종교의 신선사상에 의하여 누각 건축물의 성행[4]등으로 인도의 불교와 우리나라에서 건축되어진 불교건축물과는 조금 달리 나타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불교 연구부분에서는 여기서 오류가 범해지는데 전파라는 범위를 정해두고 불교를 해석하면 앞서 언급되었듯이 중국과는 달리 나타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문화적 교류의 입장에서 불교를 해석하고자 한다.

7-8세기의 문화적인 교류는 중국이 문화적인 거점이 된 것만은 유물 및 유적을 통하여 밝혀진 역사적인 사실이다. 문물에 있어서의 교류라 함은 문물의 전달과 함께 선택이 있고 다시 문화를 주었다는 점과 동시에 앞선 국가 및 다른 국가와의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교류, 전파 등 다른 단어를 같이 혼용하고 있는 점이다. 그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밝혀지고 있는 유물 및 유적의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유적이 있는 점 등 전파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교류적인 접근에서 건축적 유적을 이해하여야 될 것이다.

2.1.1 중국에서의 문화의 교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문화적인 교류는 실크로드를 따라 문물의 교류가 있었음을 많은 책자에서 밝혀진 바 있다. 중국과의 교류에서의 실크로드는 많은 책자에서 육로 및 중국과의 강을 통한 교역만을 이야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크로드는 고대에 비단무역을 계기로 하여 중국과 서역 각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이어준 육해 교통로의 총칭[5]으로 불교 교류사 입장에서 보면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천산산맥을 넘어 중국대륙의 고비사막에서 돈황 석굴로 이어졌으며, 신라는 육로로 영주를 통하는 안동도와 수로로는 등주에서 고구려와 발해로 들어가는 고구려발해도로 전해졌다[6].



[Fig. 2] The spread of Buddhist art(Dietrich Seckel, Buddhist Quotation)

불교미술 측면에서 보면 인도네시아와 인도차이나에서 발전하여 중국에 300년부터 600년까지 전파되어 그 흐름이 한국과(4-6세기) 일본에 전해진다고 서술되어 있다[7]. 그리고 이러한 불교미술은 일본의 나라미술, 중국의 석굴 등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후대에는 미술인 자바의 보르드부르와 캄보디아의 크메르유적에 영향을 주었으나 후대에는 지역적인 특색이 보편적인 특색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8]. 즉 7-9세기에는 문물이 전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교류적인 입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 전담이 조영되기 시작한 7세기라는 시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전담의 축조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풀리지 않은 문제는 첫째, 기술력의 전파는 세워진 조영물의 형식이 같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의 전담이 크기는 우리나라에서 세워진 전담의 크기와 확연히 달리한다는 점이다. 중국 서안에 있는 홍교사에서 현장법사탑을 중앙에 두고 양측으로 조영된 전담인 홍교사의 원측법사탑, 규기대사탑[9]을 제외하고는 크기가 우리나라에 세워진 전담보다 약 10배가량 크게 축조된 점은 이해할 수 가 없다.

둘째, 모전석탑 등 중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재질의 석탑을 세운 점이다. 모전석탑은 석재를 벽돌모양으로 잘라 전의 형식으로 조영한 탑으로 경주, 안동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모전은 전의 제작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석재를 전의 모양으로 다듬어 탑을 세울 만큼 공을 들인 점 또한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많은 학자들이 거대한 탑을 세우는데 필요한 전의 생산이 어려웠다고 하며, 모전탑을 형성하는 석재가 쉽게 생산된다면 전의 제작보다 더 쉽게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허나 당시 궁 및 사찰을 세울 때 전의 사용이 어렵지 않았다는 점은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바가 있으며, 기와 및 자기의 기술이 발달한 점으로 보아 그 근거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석재의 조달이 쉽다고 한들 전의 제작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석탑의 경우 목탑으로 제작 시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므로 견딜 수 있는 탑의 제작이 필요하여 석재로서의 탑을 조성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의 경우 계속하여 벽돌모양의 돌을 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방법이 더 성행한 것이 맞다는 반문이 든다. 하지만 모전석탑

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개체의 수는 아주 드물게 남아있어 이에 대한 답으로는 부정적이라고 사료된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에서의 산물인 문화적 교류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교류는 문물에 대한 취사선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에서 교류된 문화와 같이 선택적 수용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육로 뿐만 아니라 해상으로서의 교류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당시 의상의 입당(入唐) 시 요동지방에서 고구려의 첩자로 오인되어 곤욕을 치르고 다시 해상경로를 통하여 당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내용만 보더라도 신라에서 고구려를 통한 실크로드로의 육로 교류만은 어려움이 있어 여러 경로로 문화가 들여져 왔으며, 그 후 문화는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신라에서 지역적으로 맞게 바뀌어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이외 다른 국가와 신라의 유적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비교 해 보도록 하겠다.

2.1.2 동남아시아의 문화교류

현재 동남아시아의 최대 규모의 유적인 앙코르와트와 인도네시아의 보르부드르의 유적, 라오스의 흥낭시다사원 유적 등은 우리와 다른 종교와 국가관에서 다른 문화 유적을 조영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적의 면모를 살펴보면 당시(7-9세기)조영술 및 축조기술이 신라 및 중국의 축조기술과 같은 점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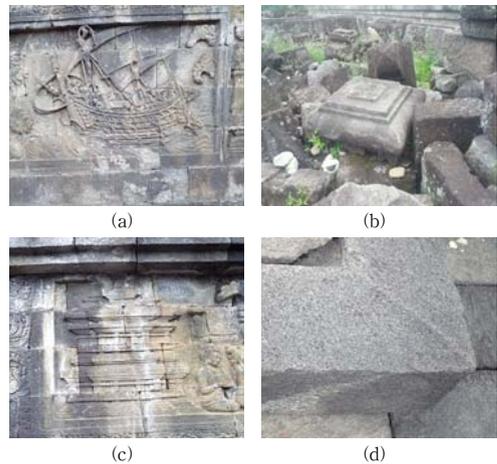
앙코르와트의 유적은 지역적으로는 힌두문명의 발상지인 인도에서 그 문화가 올라오고 중국문화가 내려오는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 국가유적의 형태로 보면 힌두문화는 캄보디아에서, 중국문화는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베트남에서는 힌두문화를 거의 볼 수 없으며, 캄보디아에서는 중국 문화를 거의 볼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조영적인 기술 및 기법들은 각 나라의 문화가 같은 점이 보여지고 있다.

아래는 앙코르와트 유적의 세부사진으로 우리나라의 석굴암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둥과 같은 형태로 주 불벽 외에 기둥에 모각을 하여 장식하고 있는 형태이며, 불국사의 수미범종각 아래에 있는 운형첨차형태의 기둥형상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ig. 3] Column Type
(a)Seokgulam Type (b)Bulguk Temple Type

인도네시아의 보르부드르 유적은 단일유적 중 가장 크게 형성된 유적으로 벽에 새겨진 장식에서 우리나라 탑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사진은 보르부드르 유적에서 반야용선을 지칭하고 있는 형태를 모각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불교적인 생각을 같이한 것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부재 치석면의 기법은 초석과 같은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고, 미륵사지 석탑과 유사한 형태의 조각, 모서리의 합각선의 형태 등에서도 볼 수 있다.



[Fig. 4] BordeBourg Temple Indonesia stonecutting
(a)Banyayeongsun (b)Basestone (c)Korea stone pagoga sculpture (d)haggag

라오스의 흥낭시다 사원은 푸사원과 같이 9세기 형성된 사원으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은장의 사용 및 문양의 사용을 같이하고 있어 교류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Fig. 5] Laos Hongnangsida Temples Alternating
(a)Unjang private use (b)Yeonhwamun

위의 7-9세기 형성된 다른 나라들의 유적은 모두 국왕 및 당시의 지배세력의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어진 유적이며 우리나라도 교류에서 지배세력들에 의하여 선택되어 조각되어졌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적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즉 교류에 의한 문화의 전파는 당시 지배지역 세력들에 의하여 선택되어 지고 선택되어진 문화는 토착문화와 만나 그 국가를 대표하는 소산물로 남겨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7-9세기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문화적인 소산물인 전담은 교류를 통한 것으로 보이며, 문화적교류는 문화의 생성과 소멸의 변화과정 중 문화적인 선택적 교류의 생성 결과물로 인지하였기에 전담이 일부지역에 국한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전담의 형성이 지역적으로 국한된 점은 이 지역에서의 행해졌던 문화적 영향력이 있는 지배세력이 다른 지역의 지배세력과 차별된 선택에 따라 다른 지역의 불교적문화권의 건축적인 행태와 이 지역의 건축적인 행태를 달리보고자 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적인 교류는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중국의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한 교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Fig. 6] The Silk Road route(Maritime route)

2.2 7-8세기 안동지역의 세력 고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신라에 나타나는 불교적 영

향은 교류의 결과로서 그 산물은 선택적인 수용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작용이 작용하였는가가 중요한 요소이다.

즉 무조건적인 전파에서는 같은 양식 같은 형태의 것이 중국과 신라에서 동시에 나타나야 하는데 경주와 안동 전담의 비교 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인 동시에 우리나라 전담의 형성이 지역적으로 국한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지배세력적인 문제와 교류로서의 문제가 전담을 조영한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2.2.1 불교적 관점에서의 고찰

안동지역의 불교사찰 창건시작은 한국의 화엄종을 일으킨 신라의 승려 의상(625(진평왕 47)~702(성덕왕 1))이 중국에서 돌아와 안동지역의 교화활동을 위하여 건립하였으며, 이 건립의 중심은 영주에 있었다. 그 이유로 의상이 중국에서 돌아와 부석사의 창건을 맨 처음 실시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영주의 불교가 경주의 불교에서 전파되어 온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새롭게 들어온 승려들에 의해 이룩된 새로운 불교[10]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의상이 수학한 화엄종은 극락전(무량수전)을 중심으로 하는 도량이다. 의상의 도량은 중국에서 지엄에게 배운 신유식으로 지론종과 섭론종의 구유식과의 차별이 있었으며,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불교적으로 나타난 배경으로 왕실·귀족중심의 불교 쇄락, 지방호족의 후원-9산선문의 성립, 불교의 대중화와 불교 예술의 발달, 불교 교리의 다변화가 사찰조영의 다양화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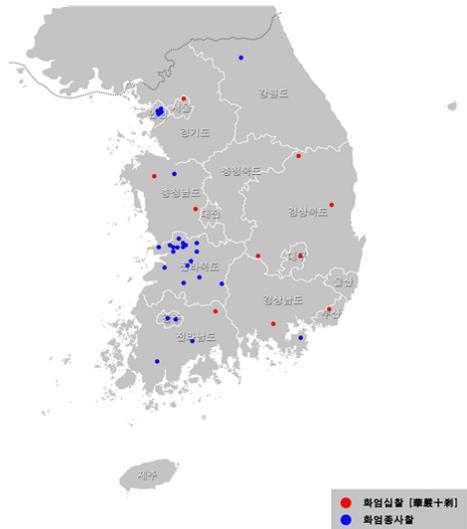
여기에 김왕직(2007)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 불교적인 측면에서의 가람을 ‘유가중 사찰의 건축적 특징’이라는 논문에서 당시의 신유식의 발생으로 그 영향력 아래인 원측의 서명학과 활동과 함께 ‘범화경’을 강독하거나 주석을 달았던 승려들이 유가승이라는 점을 들어 쌍탑가람의 형성배경[11]으로 보았다.

당시 의상은 중국에서 신유학을 공부하고 당의 침입을 막고자 신라에 들어왔으나 당시 신라에서 불교를 장악한 상황에서는 배척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2009) 권 3에서 보면 부석사 창건시 다른 종파의 무리 500여명이 사찰의 창건을 방해한 설화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국가적인 상황이 당과 대응할 수밖에 없는 700년대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의상의 말

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주지역 불교계에서는 의상을 배척함에 따라 경주지역에서 벗어난 안동, 영주지역에서 불교의 전파를 행한 것은 당시 당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와 부석사의 창건을 한 것, 화엄십찰을 창건한 것을 보면 의상이 배척된 상황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의상과 원효 중심으로 두고 개인적 사상적으로 풀어보면 의상은 후진의 교육, 화엄교단의 확립을 두고 화엄사상을 펼친 화엄종으로 사찰공간은 단탑형-2불전형-다영역형-중축형으로 나타나나, 원효는 사상과 저술, 대중교화를 중심으로 일심사상, 무애사상, 원융회통사상으로 법성종을 펼쳐 사찰공간이 쌍탑형-2불전형-2영역형-병렬형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로 원효의 사찰은 전국적으로 창건되어 지고 의상의 사찰은 경상북도 및 전라도에서만 창건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당시 불교의 정세적인 상황인 불교의 대중화 및 다변화, 지방세력의 성장 등이 부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석사 창건에 있어 당시 국왕인 문무왕이 장전과 노복을 시영하겠다는 호의를 베풀었으나 이를 거절하며 사찰을 창건[12]한 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로써 유추해 볼 때 중앙세력의 힘을 빌지 않고 지방세력의 힘으로 화엄종사찰의 창건 및 전파의 조영은 경주지역 외에서 이루어졌으며, 중심지역에서 밀려난 의상 및 세력들이 많은 공력이 필요한 거대한 석탑의 조영보다 전의 생산 및 대중화로 인한 쉽게 만들 수 있는 전탑이 성행되는 것으로 보인다[13]. 그 이유로 『삼국사기』의 예를 들 수 있다. 사기에 의하면 “왕이 京城[경성:慶州(경주)]을 一新(일신)케 하려 하여 浮屠[부도:僧侶(승려)] 義相(의상)에게 問議(문의)하니 그는 말하기를, “비록 草野茅屋(초야모옥:거친 들과 거친 집)에 있더라도 正道(정도)만 행하면 福業(복업)이 長久(장구)할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正道(정도)를 不行(불행)한다면)비록 (여러)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홍룡한) 城(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利益(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므로 왕이 곧 役事(역사)를 그쳤다.”하여 지방세력이라도 정도를 행한다는 의상의 의지를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이 지역에서의 화엄종의 대중화와 중앙세력과의 지역적인 거리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전탑 및 화엄종은 불교세력을 중심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현재의 전라남도과 우리나라의 중앙부와 청도 등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Fig. 7].



[Fig. 7] 10 Temples hwaeom position and hwaeomjong

2.2.2 지방세력과 지역적 거점론점에서의 고찰

신문왕 5년(685년) 지방행정을 전국을 9주(州) 5소경(小京)으로 편성하였는데 상주는 9주에 속 하여 주치소(州治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경덕왕 16년(757년)에 사벌주를 오늘날의 상주(尙州)로 개칭하고 혜공왕 12년(776년)에 1주(州) 10(부)郡 30현(懸)을 관할하였다. 상주에 소속된 군현은 오늘날 낙동강 상류지역인 안동시 임하면 일대를 경계로 서 쪽으로는 영주시 일부, 청송군 일부, 예천군, 문경시, 의성군, 군위군, 김천시 일부, 충북의 청원·보은·옥천·영동·황간 일대가 관할에 속하였다. 이 지역은 고창군으로 당시의 지배세력이 식읍으로 부여받아 지배하던 세력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세력들은 중앙세력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진성여왕 6년(889년) 정치문란으로 각 지방의 호족세력과 농민의 봉기가 가장 크게 일어났다. 그 후 복원의 양길과 궁예, 견훤 등의 후삼국 형태로 발전하였다.

당시의 지방세력들은 백제의 지역에서 거주해온 세력으로 『삼국사기』 권제6 신라본기 제6 문무왕조에 따르면, 백제의 달솔 조복과 은솔파가가 무리와 함께 항복하자 조복에게는 급찬의 관등을 주어 고타야군 태수로 삼았고 파가에게는 급찬의 관등과 아울러 토지와 집, 옷 등을 내려 주었다[14].라 하여 신라가 백제지역을 정복하고 그 지역의 세력을 인정한 것으로 당시 세력들이 새로운 국가를 인정하였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듯이 의상이 부석사 창건당시

500여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세력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세력들은 새로운 불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나 정치적인 혁신을 위하여 의상의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보여 진다. 그 점에서 나타난 것이 중국에서의 직접적인 전래인 전탑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신라화 되지 않은 불교와 중심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에서의 불교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영주 안동 등의 지방에서 형성된 전탑의 형식이 발해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발해지역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당이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2만의 군대를 주둔시켜 고구려 유민들을 통치하는 한편, 고구려의 유력 가호 3만 8천호를 당의 내륙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 부흥 운동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였다. 그러나 당의 의도와는 달리 검모잠, 안승의 난과 같은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이 가속화되는 지역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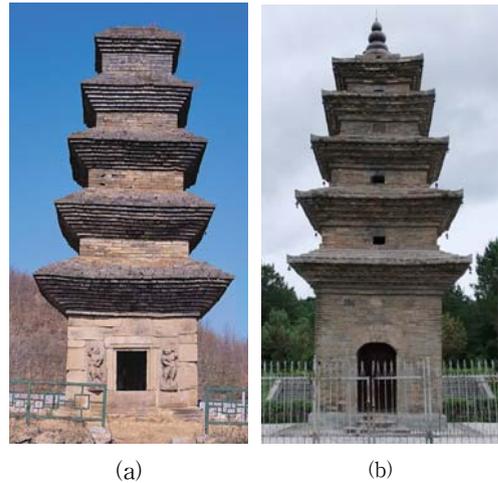
당시 당은 옛 고구려 지역에서의 반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장왕을 요동주도독으로 책봉하였으나, 오히려 요동에 거주하고 있던 고구려 유민들과 연계하여 부흥 운동을 도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보장왕의 모반 사건은 요동 지역에서 당이 통치력을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도 고구려 유민들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나라 즉 신라의 불교적 영향에서의 사찰을 창건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점이 안동지역의 세력과 발해지역의 세력이 동일시 되는 점이 나타나며, 세워진 전탑의 형식 또한 같게 나타나고 있다.

2.3 영광탑과 신라전탑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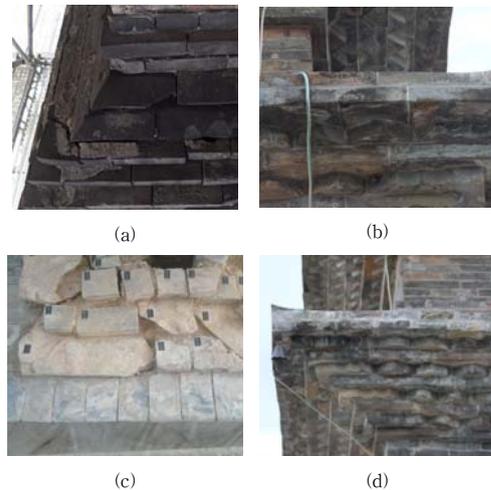
발해는 698년 신라 영주에서 도독 조문해의 폭정에 반발하여 거란인 이진충, 손만영 등이 일으킨 난을 피해 이곳에 있던 대조영이 고구려의 영토를 계승한 이 지역에서 불교를 전승하여 현재의 길림성 돈화시에 위치한 동모산에서 건국하였으며, 926년 거란에 멸망할 때까지 228년간 존속하였다. 발해지역에서 조영된 사찰은 총 42개로 그 중 탑터가 발견된 유적으로는 총 12개에 이르며, 전탑을 축조한 사찰은 3개에 이른다[15] 남아있는 탑은 영광탑만이 있다. 영광탑은 당나라(618~907년)시기에 세워진 전탑으로 한인호는 “조선고고연구”에서 통일신라 다보탑과 석가탑의 지붕선, 추녀들림, 탑의 체감 등이 중국식의 전탑과는 엄연히 달리 나타난다[16].고 서술하였다.

영광탑은 형식은 정방형 5층탑이며 높이가 12.35m로

체감은 2층에서 이루어진다[17].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체감의 비율과 위치가 같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규모와는 달리 나타난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듯이 다양한 크기의 벽돌을 사용한 점, 합각선의 형식, 벽돌 중 힘의 하중을 받는 부분의 재료를 달리 사용하는 점 등은 중국과 달리 나타나는 특징이며, 우리나라의 전탑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Fig. 8] Korea and China jeontap form
(a)Jotapdong jeontap
(b)Balhae Young-gwang pagoda



[Fig. 9]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 jeontap form
(a)Sinsedong Naksumen form
(b)Young-gwang pagoda Naksumen form
(c)Jotapdong Okgaesuk form
(d)Young-gwang pagoda Okgaesuk form

안동지방에 위치한 전탑과 발해 영광탑의 세부사진을 보면, 신세동 전탑에서의 합각표현 및 옥개석의 조합시 세로로 진의 형태를 조합한 점 등이 우리나라 전탑과 발해 영광탑과 동일시 볼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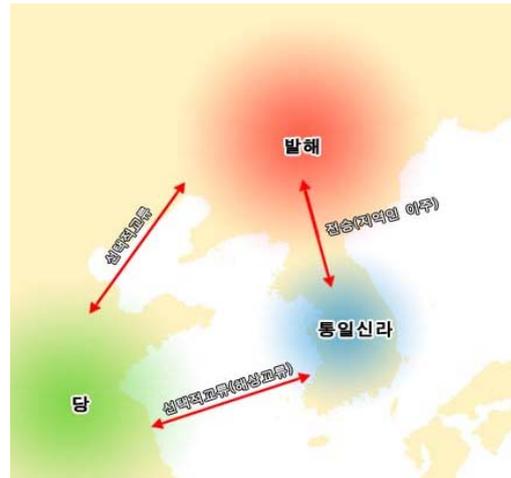
이러한 점은 앞서 언급한 지방 세력인 영주지역의 세력이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지고 자신만의 불교문화의 문물이 합해져 선택적 조영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에 조영된 전탑 역시 이러한 영향에서 조영된 결과이며, 당시 발해와 신라와의 교섭관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신라의 지역과 발해와 교류적인 입장에서의 선택적 교류의 소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류의 소산물인 전탑의 조영시기를 살펴보면 중국의 흥교사 전탑은 696년 세워졌으며, 발해 영광탑은 자세한 년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발해가 형성된 698~926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당시 신라에서 조영된 탑은 모전탑인 분황사 모전석탑(634년)이며, 안동의 전탑은 거의 대부분이 통일신라(676~935)이며 이에 탑의 조영순서를 나열해 보면 경주 분황사 모전탑 → 중국 흥교사 전탑 → 발해, 안동 전탑의 순으로 나열된다.

그러나 발해는 732년 대문예를 비호하던 당을 응징하기 위해 당의 산둥반도 등주와 여러 북방민족들과 연합하여 마도산을 공격하는 등 많은 전쟁이 이루어졌으며, 735년부터는 친당외교정책(親唐外交政策)으로 바뀌어졌으나 발해가 당나라의 요구에 끌려 다니지만은 않았는 점을 보면 당시의 교역상황은 전파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에 있어 전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대등적인 입장으로 교류적인 입장이 강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발해의 민족성 또한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유민족이 세운 국가로 인하여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와의 공통점이 발생하게 된 것이 비슷한 시기의 전탑조영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러한 연유로 발해는 우리나라와의 지역적, 민족적 영향력을 같이한 민족이라 할 수 있으며, 신라지역 전탑의 맥락이 발해에서 같이 나타나고 중국과는 달리 나타나 현재 발해지역을 중국으로 보는 경향은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제까지 국제적인 교류의 관점과 불교적, 지역적인 관점에서 본 전탑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류는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와 함께 해상경로로의 교류가 있었으며, 그 증거로 비슷한 시기 중국과 동아시아지역의 유적을 비교하여 본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중국과의 문화교류는 전과되어 맹목적인 습득이 아니라 지역적인 세력의 선택적인 교류라 할 수 있었다.



[Fig. 10] Alternating status

둘째, 우리나라에서 전탑이 조영된 이유는 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양질의 흙 뿐 만 아니라 불교적으로 신라중심세력의 배타 및 이에 부합하지 않는 의상의 화엄종, 불교의 대중화, 지방세력의 거점화 등이 밀접하게 연계된 결과가 전탑 조영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탑은 중국에서 발생한 탑의 조영이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달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선택적 입장에서 문화가 받아들여져 발해, 안동지역에서 독특한 형식으로 발전, 조영되었다. 이러한 전탑 형식은 발해와 신라와의 교섭관계 및 지역적, 민족적 영향력이 작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교류에 의한 선택적인 문화의 소산물이라 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전탑이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적인 전파 및 중국의 소국으로서의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 민족국가의 형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중국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으로 전파된 문화적 교류, 전탑의 발생은 중국에서 들여온 문화가 신라에서 지역세력과 접합한 후 우리나라에 맞도록 선택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세력에 따른 조영의 법식이 있다

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발해 지역과 안동지역에서 조성된 전담의 조영은 우리나라만의 특색이 깃들여져 있어 시대적, 민족적 상황을 파악한 후 재해석하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앞으로 전담 연구에 있어 다른 각도로서의 접근을 제시하는 논문으로 많은 직접적인 증거를 자세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는 앞으로 더욱 문화적인 증거를 찾아 우리나라 선조들의 역사적인 우수성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Byung-Hyuk Kwon, A Study on the Commentary on Andong jeontap, museum.andong, 1992, p9
- [2] Front of the book, p9
- [3] Front of the book, p9
- [4] Byeong-gun, Lee,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Meaning of Balhae Brick Pagoda in Northeast Asia,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Number 21, 2009, p154
- [5] DAUM Encyclopedia,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3s3348b>
- [6] Hun-Duck, Chang, Buddhist art of China and South Korea, Light and Post, 2005, p8
- [7] Dietrich Seckel, Buddhist, 2002, YeKyong, p132
- [8] Front of the book, pp132-134
- [9] Hun-Duck, Chang, Front of the book, pp36-37
- [10] Se-gweon Yim, The Introduction and Transformation of Brick Pagodas in Korea, ANDONG UNIVERSITY, p15
- [11] Man-hong, Park, , Wang-Jik, Kim, , A Study on the Ugajong Temples for the temple's architectural features discussion, Korea Institute of Architectural History, 2007, Conference p44
- [12] Ik-Jin, Koh, Study of the history of ancient Korean Buddhist thoughts, TONGWON NNIVERSITY PhD thesis, 1989, p.223.
- [13] samkoksagi sinlabongi Number 7 monmu ha
- [14] samkoksagi sinlabongi Number 6 monmu
- [15] Byeong-gun, Lee,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Meaning of Balhae Brick Pagoda in Northeast Asia,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8, p139
- [16] TONGWON UNIVERSITY, A comparative study of the architectural form on the Balhae Young-gwang pagoda and south of the Han river brick pagoda, 2009, MINISTRY OF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of Koguyo Balhae, 2010, p6
- [17] Byeonggun, Lee, Front of the book, 2009, p143

김 상 구(Kim—Sang Gu)

[정회원]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 과정)
- 2009년 2월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 졸업 (건축공학석사)
- 1979년 9월 ~ 2014년 6월 : 문화재관리국,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근무
- 2006년 7월 ~ 2014년 6월 : 문화재청 건조물과장, 전시관 건립팀장, 건축문화재과장, 문화재안전과장, 승례문복구팀장, 현충사관리소장, 근대문화재과장 등 역임

<관심분야>

전시관 건립, 문화재(고건축, 전담, 석탑 등) 분야

이 정 수(Lee-Jeong Soo)

[정회원]



- 198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 1992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1993년 3월 ~ 2002년 6월 :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 2002년 6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축계획, 설계, 전통건축, 문화재